

보도 자료

18개의 학생 레이싱팀의 스폰서 이타스

이타스가 두 번 연속으로 독일을 비롯해서 세계 각지에서 열린 포뮬라 학생 대회에 참가하는 18개의 학생 팀을 지원하는 메인 스폰서가 되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본사를 둔 이타스는 글로벌한 영향력을 토대로 스폰서하는 팀의 필요에 따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이타스는 2008년부터 전세계의 엔지니어링 학생들을 위해서 열리는 설계 대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Formula Student Germany(FSG)를 스폰서 하고 있다. 이번 레이싱 시리즈는 2013년 7월30일부터 8월4일까지 호켄하임 경주로에서 개최되었다.

스폰서하고 있는 팀에는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팀들이 포함되어 있다. FSG 2013 fuel burners의 선두 세 팀 중 두 팀을 이타스에서 지원했다. 2위는 슈투트가르트 대학의 “Rennteam”이, 3위는 “Rennstall”이라는 에슬링엔 팀한테 돌아갔다. 전기 레이싱 그룹에서는 칼스루헤 공대의 “KA-Racing”이 3위에 올랐다. Formula Student Academy에서 제공되는 “최고의 신인상”은 예상을 깨고 Ruhr-University Bochum의 “RUB Motorsport”로 돌아갔다. 독일 엔지니어협회의 후원을 받고있는 FSG는 총 2,500 학생을 포함한 115팀을 상대로 경쟁했다. 전년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타스의 관여로 인해 포뮬라 학생에서 높은 수준의 검증된 주니어 인재들 모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타스 인사부 대표 브리기테 마이는 “팀에 대한 개인의 헌신도와 얻어진 지식을 실용적으로 적용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라며 학생들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평균 나이 20으로 이루어진 신입 엔지니어들에게 자동차를 디자인, 설계하고 만드는 데까지 정확히 일년만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 과정에서 경주자들을 위해 자세한 예산 및 마케팅 컨셉을 만들어야 한다.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끈끈한 팀 결속력에 접목시키는 팀만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DHBW 엔지니어링 팀 멤버로 활동하고 현재 이타스에서 듀얼 스터디

ETAS GmbH

Borsigstraße 14
70469 Stuttgart, Germany
Phone +49 711 89661-240
Fax +49 711 89661-108

Press and Public Relations:
Anja Krahl

anja.krahl@etas.com
www.etas.com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IT 학생 아론 옥스가 강조하길 “계획적으로 주기적인 팀 이벤트를 갖는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 이벤트를 통해서 팀의 결속력을 다집니다. 이것은 이러한 종류의 대회에서 필요한 강한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는 자동차 전자기기를 담당하는 팀 멤버이기때문에 팀에서 만든 차와 함께 사용되는 이타스 장비의 사용법에 정통하다. “저희는 메인 자동차 제어유닛에 이타스 ES910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모듈을 사용합니다. 모델 기반 프로그램 성능에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INCA 및 ASCET 과 같은 소프트웨어 장비도 사용합니다.”

모터스포츠 및 자동차 산업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관정단(2013년에는 이타스 관계자 6명이 포함되었다)은 다양한 분야를 평가한다. 시합이 진행될수록, 우승자는 무조건 제일 빠른 경주차가 아니고 설계, 레이싱 성능, 재정 계획 및 sales arguments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제일 높은 점수를 보여준 팀이 된다.

이타스는 보쉬와 자회사인 보쉬 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주최하여 북스베르크 Proving Grounds 에서 열린 모의 워크샵 등을 통하여 팀들을 초기 준비단계에서부터 지원한다. 7월 12일과 13일에 북스베르크는 독일,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에서부터 온 25개의 학생 팀들이 개발한 차량을 실제 경주조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장이 되었다. 230명 이상의 참가자들은 공동여 호켄하임의 실제 상태를 본 뜬 다양한 테스트를 하고 차량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았다. 여기서도 역시 보쉬 및 이타스의 전문가들이 사용되는 장비의 사용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슈투트가르트 대학 레이싱팀의 베르트 에델만은 “다른 참가팀들을 대면할 수 있었던 첫번째 기회였습니다. 상대방의 성능과 비교하여 어디를 개선해야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며 북스베르크 경주장에서의 이상적인 테스트 기회를 칭찬하였다.